

강남캐스터넷, 2022 홈케어·재활·복지전시회서 효율성 좋은 전동 계단운반기 리프트카 공개

[이재훈 2022-06-10]



전동 계단운반기 리프트카 | 촬영-에이빙뉴스

강남캐스터넷(대표 안중모)은 6월 9일(목)부터 11일(토)까지 3일간 서울 코엑스(COEX)에서 열린 'Reha-Homecare 2022(2022 홈케어·재활·복지전시회)'에 참가했다.

강남캐스터넷은 25년 차 운반기 전문업체로, 유럽 오스트리아 사노 운반기(SANO Transportgeraete GmbH)와 손 잡고, 고품질의 전동 계단운반기(powerd stair climber)를 국내에 공급하며 기술지원 및 AS를 책임지고 있다.

이번 전시회에 선보인 전동 계단운반기 리프트카 PTR은 기존에 사용하던 병원용 표준 휠체어에 장착해 휠체어와 함께 계단 운반이 가능하며, 무한궤도가 여러 계단을 맞물고 오르내리기 때문에 운전자는 계단 위에서 버튼 하나만 누르면 될 정도로 힘이 거의 들지 않는다.

만일 운전자가 계단 위에서 손을 놓는다 해도 이 제품은 계단 위에 멈춰 있을 정도로 안전하다고 회사 측은 전했다. 휠체어 무게 포함 최대 160kg까지 운반할 수 있으며, 완전충전 시 1천 계단을 오를 수 있을 정도로 효율성도 좋다. ISO13485 인증을 받았고 식약처 의료기기 1등급이다.

강남캐스터넷 안중모 대표는 "이러한 계단운반기 제품이 있다는 것을 모르는 분들이 아직도 많아서 조금이라도 더 널리 알리기 위해 지난 3월에 이곳 코엑스에서 개최했던 국제의료기기 전시회와 더불어 이번 전시회도 준비했다. 저희 제품이 의료기기이긴 하지만 의료기기의 범위가 워낙 넓어서, 이번 전시회인 홈케어, 재활, 복지 전시회에 더 적합한 제품이라고 생각했다"고 참가 이유를 전했다.



전동 계단운반기 리프트카 시연 모습 | 촬영-에이빙뉴스



전동 계단운반기 리프트카 시연 모습 | 촬영-에이빙뉴스

또한 "전국 제주도까지 초·중·고등학교에 납품한 실적이 있다. 학교 외에 교회, 엘리베이터가 없는 단독주택이나 빌라, 상가건물 등에서도 구입하여 사용한다. 인천의 어느 어머니는 30대 아들이 갑작스러운 교통사고로 병원에 입원한 이후로 6년간 한 번도 4층 집에 들어가지 못한 것을 안타깝게 여겨 이 제품을 구매했다. 납품한 당일, 아들을 6년 만에 처음으로 이 계단운반기로 4층 집에 들이면서 기뻐하셨던 모습을 기억한다"고 실사용 고객의 호평을 전했다.

이어 "항상 전문가가 직접 납품하며 최소 1시간에서 3시간 넘게 사용설명과 안전교육을 해 드린다."고 강조했다.

한편,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와 한국의료기기유통협회 및 위엑스포가 주최한 Reha·Homecare 2022는 '건강한 삶, 행복한 인생'을 주제로 건강과 재활용품 및 불편을 해소하는 복지용구들을 한자리에 모아 전시 소개했다. 아울러 △뉴노멀 시대 지역사회 장애인 보건·복지 서비스 생태계 구축 △국내 고령친화산업 활성화 방안 △재활의료기기의 디지털 전환 등 전문 세미나가 동시 개최됐다.

→ [Reha·Homecare 2022 뉴스 특별 페이지 바로 가기](#)


→ [Reha·Homecare 2022 LIVE' 사전등록 이벤트 바로 가기](#)



전동 계단운반기 리프트카 시연을 지켜보는 참관객 모습 | 촬영-에이빙뉴스

Global News Network 'AVING'
(www.aving.net)

Copyright 2022 NSBS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출력하기 닫기